

| 교수 인터뷰 | 가르침에 대한 성찰

장상호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핵심교양 교과목 <삶과 교육> 강좌를 개발한 사범대학 교육학과 장상호 교수를 만났다. 현재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우수강의로 추천되어, 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이 진행 중이다. 이 강좌는 삶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제와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고안되었다. 교육학자로서 지난 30년 간 연구와 교육에 힘쓰신 장상호 선생님의 교육관과 철학을 들어보았다.



장상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 학위를 마친 후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과 교육(상·하)』(서울대출판부, 1997·2000), 『행동과학의 연구논리』(교육출판사, 1992), 『인간행동과 자유』(교육과학사, 1982)와 같은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 역서로는 『인간주의 교육』(박영사, 1989) 등이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삶과 교육> 강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호 : <삶과 교육> 강의는 서울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도입한 핵심교양과목의 하나입니다. 교양 과목은 대학생들이 전공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지식 혹은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의 분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본 강의는 교육의 현상을 이해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삶과 교육’ 강의는 교육을 삶의 한 특수한 양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서울대의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교양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직과목 중심의 교육학 혹은 일반인의 통념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교육학 이론으로서의 교육 본위론

교수학습개발센터 : 기존의 교직 과목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장상호 : 현존하는 교직중심의 교육학은 교육을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즉 schooling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기존의 학문, 즉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교직과목은 사범대학생들에게 교육이라고 하기 어려운 학교 안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타 학문적인 사실들을 도입하여 소개하는 일종의 교양과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직과목은 교육을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비교육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교육학의 맹점이 태생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합니다. 하여간 일반학생들에게 그런 사범대학의 교양과목들은 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포착될 수 없는 교육의 현상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교육학 고유의 이론과 개념으로 소개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학을 우리는 교육원리, 혹은 교육 본위론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대한 두 가지 기대 효과

학교 중심의 교육관의 건설적 해체 /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적 삶 향유

교수학습개발센터: 지금의 교육학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소개한다고 이해됩니다. <삶과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장상호 : 교양과목으로서 본 강좌가 교육을 삶의 한 양상으로 소개하는 입장을 택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학교를 교육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교육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교육이 일어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이 분명하게 대비될 수 있고, 교육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강생이 장차 현존하는 학교를 견제하는 비판적인 학부모가 되게 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 강의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공헌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교육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그 주체는 교사나 국가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학생들은 나날의 일상 속에는 교육의 공간이 가능함을 알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대한으로 교육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적 원리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요소들의 도입

교수학습개발센터 : 학생들에게 교육을 삶의 한 양상으로 이해시키고, 학교를 그런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게 하시려면 강의 과정에 이러한 교육 이론을 모범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장상호 : 그것이 이 강의의 큰 부담입니다. 강좌가 오로지 교육적일 수만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교육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강의에서 교육의 내재율, 즉 교육을 성립시키는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강의 내용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교육의 원리를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강의계획서와 상구지침서, 웹 클래스, 시청각자료의 활용, 하화공동체*와 근스승**, 소집단 활동, 질문공탁, 노트작성, 영화의 교육학적 감상, 교육공간의 사례연구 및 발표, 교수의 학생 평가, 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은 그 예입니다. 이런 특성에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아, 이 강좌는 뭔가 다르구나! 나도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도록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육 자체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우리는 메타교육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 뿐 아니라 교육의 원리를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메타교육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은 강의를 위한 소망

교수학습개발센터 : 앞에서 설명해 주신 <삶과 교육> 강좌의 특징들은 통상의 강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인데 교수님은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강좌에 도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장상호 :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번 <삶과 교육>이라는 교양강좌를 맡은 이후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거의 30년 동안 교육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교육은 이런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강의는 다른 여타의 전공영역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과 실천이 괴리된 것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 그와 같은 전환점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장상호 : 그렇습니다. 저는 한 동안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심리학적 관점을 학교에 적용해 보는 데 치중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사실 교육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안 것은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이전의 교육심리학을 그만 두고 교육 자체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삶과 교육>이라는 강좌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교육하는 것이 강좌의 내용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호 : 글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얼마나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가령 주로 연구물을 중심으로 교수의 업적을 평가한

* 하화공동체: 수업은 개별적인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도에 따른 개별지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본 강좌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화공동체라는 방법을 쓴다. 여기에 참여하는 근스승들은 가르치는 방식까지도 전수 받게 된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에 하화공동체의 운영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해 교생 실습의 의미를 갖게 된다.

** 근스승: 수업의 보조자를 말하며 장상호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근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여 가르치는 일에 참가하며, 일부는 강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타의 작업을 돕는다.

다면 굳이 강의에 큰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지요. 사실 잘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노력의 면에서 잘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강좌를 신설하면 그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운영하자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 운영비가 더 중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본 강의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4명의 근스승이 있는데, 그들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강좌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그 경비는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어요.

교수학습개발센터 : 본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장상호 : 학생들이 강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강좌가 얼마나 교육에 충실하느냐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강의는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와 활동을 요구하는데 학생들은 쉽게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는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는 학문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

교수학습개발센터 : 더 나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좋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상호 : 짧은 시간에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대학당국의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교수와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창한 대책보다 앞서 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수의 역할은 대학의 기능과 결부하여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기능을 흔히 연구, 교육, 봉사로 나눕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교수는 비단 학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그 탐구한 내용을 잘 가르치는 일은 별개의 것이죠. 또한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대학의 강의에서 자신의 전공영역 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공 영역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잘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대학의 교

수는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스승 박진숙 씨(교육학과 박사과정)와 함께 토론 중인 <삶과 교육> 수강생들